
대한민국 인재상

in HANDONG GOD'S UNIVERSITY
한동대학교

#Proverbs 16;9

*"In his heart a 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https://www.handong.edu/>

대한민국 인재상

창의·융합적 인재를 발굴, 시상하여 미래 국가의 주축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인재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부터 조금씩 변화되어 현재 매년 청년·일반인대상 50명씩 선발하고 있습니다. 심층면접 등 다중 검증을 통해 청년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및 상금이 수여되는 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한동대학교에서 최근 꾸준히 선발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선발된 자랑스런 한동인들을 소개합니다.



지현석_2011년 인재

2012년 2월 졸업 / 04학번 /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수상소감

2011년 대한민국 인재상에 선발되어서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인재상 서류를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의 활동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비전을 향해 더욱 열심히 전진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재상의 취지가 뛰어난 학문적인 업적만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바탕으로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장려하기 위한 것임을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의 대학 장학금과 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외교통상부의 국제 기구 인턴 파견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슴 한편에 언젠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재상 선발을 통해서 저를 잠재력을 믿고 후원해주는 한국 정부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장관 및 가치관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평범한 학생으로서 학교 공부에 충실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았고 매 수업시간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노트를 잘 필기하고 개인적인 학습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나갔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한번 실패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공부에만 전념하기 보다는 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지성, 인성, 영성을 키워주는 교육은 어떤 업적을 이루기에 앞서서 "나는 누구인가?"와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적 가치관을 먼저 확립시켜주었습니다. 정직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학교의 모토를 늘 마음속에 새기며 낮은 자를 섬기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장래 진로와 포부: 10년 후의 Dream(꿈)과 Hope(희망)

저는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IE businessschool에 International MBA 과정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미국의 국제 관계학 분야의 몇몇 대학원의 입학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년간의 석사 공부를 통하여 기업이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 개발 전문가가 되려고 합니다. 학업과 병행하여 국제 개발 회사 (가치, Shared Development International)을 설립하여 한국의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국가 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정부 및 민간 기업과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10년 후에는 개발도상국 5곳에 Shared company를 설립하여 국제 기구, 국제 은행 및 다양한 국가의 정부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활동경력

·대외활동

- 한동대학교 Global Entrepreneurship Training Program 페루 시행준비('11.11)
- 한동대학교와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교육 협력제안 ('11.08)
- 한동대학교와 Saint Agustin University의 양해각서(MOU) 제안 ('11.07)
- 미주기구 인턴으로 중남미 통합 물교육 프로그램 기획 ('11.01-'11.07)
- 한동대학교 중남미 선교 및 개발 동아리 창단 ('09-'10)
- 한국국제협력단 협력요원으로 페루 산아구스틴 대학교 식품공학부와 미생물 실험실을 위한 5만불 프로젝트 수행 ('06.04-'08.10)

·수상경력

- 충청남도 수학·과학 경시대회 생물부분 은상 ('02)

손승리_2012년 인제

2014년 8월 졸업 / 06학번 / 경영경제학부(경영,국제지역학)

수상소감

대한민국인재상이라는 큰 영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에게 항상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보공모공고 이후 서류심사, 면접, 선정, 연수 등 많은 과정을 뒤 돌아 볼 때 나의 업적과 능력으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영예이며 더 많은 노력과 책임이 따르는 상임을 자각하고 대한민국인재상수상자의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고자 노력했던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모두와 함께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과 실 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함께 행복한 사회,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성장과정 및 가치관

어린 시절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더 좋은 환경과 대우를 외면하고 농촌을 살리겠다고 힘쓰시는 모습이 부끄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대학까지 나와서 왜 시골에서 농민들과 함께 고생하는지, 왜 나까지 농촌에서 불편하게 살아야하는지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물질과 향락,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치가 추구하는 사회가 얼마나 병폐가 많은지 알게 되었고 부모님이 추구하시는 가치를 조금씩 느끼고 나도 부모님처럼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대 후 1년간의 중국여행, 복학 후 1년 동안 나는 어떠한 가치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하는지 고민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주)향기내의사람들이라는 사회혁신기업의 학생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어떠한 스펙이라도 쌓아야겠다는 조바심에 시작했었지만 여러 업무들을 맡으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만나고 이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저소득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들을 분류하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면 일반인과 다를 것 없는, 오히려 배울 점이 많다는 사소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서 꿈과 희망을 빼앗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교육과 복지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치 있는 일에 나의 모든 열정과 능력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꿈꾸는 떡 설레',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 대한 멘토링, 인식개선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공감을 바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간다면 사회적 약자는 더 이상 사회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의 관심과 작은 실천이 있다면 이러한 구호는 더 이상 공허한 외침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장래 진로와 포부 : 10년 후의 Dream(꿈)과 Hope(희망)

저는 새로운 자본주의,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부의 축적과 과시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작 분배와 바른 사용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현실을 타파하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사회적인 약자들도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자활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업이나 부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막혀있는 부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면 더 좋은 사회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업활동이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부유함이 아름답고 귀결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기업이 단순한 사회적 책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노인들,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우리와 함께하는 기업',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업'으로 사람들에게 각인 되고, 스펙과 학점에 연연하며 취업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들이 착하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회적 기업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젊은 리더들을 양성하고, 사회적 기업들의 허브가 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손승리, 바로 그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적 및 활동

- '08~'11 전화영어업체 케빈잉글리쉬 공동창업 및 운영('08.12~'11.12)
- '12 (주)향기내의사람들 손을모아 프로젝트 매니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꿈꾸는 떡 설레 런칭 및 사업화완료
- '12 (주)향기내의사람들 유통관리부 차장 꿈꾸는 떡 설레, 카페히즈빈스 유통사업 총괄
- '11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청와대 오찬 간담회 사례발표 및 청와대 메인뉴스보도
- '11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대학생봉사활동 지원 프로그램 '라이프가드' 우수프로그램선정 및 사례발표
- '11 사회적기업진흥원 주최 청년 등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중간보고대회 우수사례선정 및 발표

김민서_2013년 인재

2015년 2월 졸업 / 11학번 / 생명과학부

수상소감

우선,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상하게 되었 다는 소식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았는데, 내가 잘나서 혹은 정말 뛰어나서 받았다는 생각은 도저히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상은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던 삶에 태도나 가치관, 꿈 등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한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성장과정 및 가치관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스스로의 문제점들 때문에 평탄한 유년시절을 보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완쾌되었지만 고등학교 시절까지 경험하던 질병과 약의 부작용들, 그리고 그로 인한 열등감과 패배주의적인 마음가짐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던 스스로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 보면, 이러한 부족함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좌절은 해도 포기하거나 안주하지는 않았고, 항상 스스로의 부족함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극복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자세가 지금의 저를 있게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말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성장과정을 통해 실패나 시련도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다 보면, 이러한 작은 것들조차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마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나누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장래 진로와 포부 : 10년 후의 Dream(꿈)과 Hope(희망)

'포경수술이 에이즈를 60%까지 예방한다'라는 논문 하나가 WHO(세계보건기구)의 보건 정책을 변화시킨 것처럼, 저도 의학 연구 등을 통해 보건정책을 움직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이 분배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중추가 되고 싶습니다.

주요 공적 및 활동

- '12~인도 수질개선 프로젝트(수인성 질병 예방 프로젝트)-Global Engagement& Mobilization Program(GEM)
- '12 논문게재("컴퓨터 게임 전후 각막과 안구의 고위수차 변화"/대한안과학회지) - '12~STAR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선정
- 국외지 논문게재("Water problem solution for low-income class of Bihar, India: Comprehensive approach with appropriate technology-based Handong Filter"/Bihar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11~'12 장학금(1-1학기(석차 1/819), 1-2(14/775), 2-1(3/87), 2-2(1/80)) <수상경력>
- '13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설계 경진대회(전국대회) 동상 - '10 미국 대통령상(오바마 대통령 상)

주재용_2014년 인재

2016년 8월 졸업 / 11학번 / 언론정보문화학부

수상소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언론인인 손석희 앵커는 한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으로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상한 사람이 아닌, 확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언론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언론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회가 조금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겠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도록 큰 가르침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홀로 두 아들을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신 어머니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장과정 및 가치관

어렸을 때는 아무런 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난'이라는 것이 참 원망스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눠주신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러한 물질적인 결핍 덕분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후에 학교에서 언론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약자의 목소리도 우리 사회에 전할 수 있는 언론인이 되겠노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대학의 슬로건은 'Why not change the world'입니다. 이제 조금은 어떻게 이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나운서이자 언론인으로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래 진로와 포부 : 10년 후의 Dream(꿈)과 Hope(희망)

저는 우리 사회와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아나운서이자 언론인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회 저편에서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있을 청소년들과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적폐를 해소함으로써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사 토론 프로그램, 뉴스, 강연 프로그램 등의 방송에서 진행을 통해 이러한 제 꿈을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더 다가가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함으로써 무소의 뿔처럼 움직이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요 공적 및 활동

- '14 (주)씨앤엠 케이블TV 보도부에서 인턴 기자 활동
- '14 중앙일보 오피니언 지면에 '이 추운 날 홈리스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칼럼 기고(2014.01.25. 일자 신문)
- '12 여성가족부 주최, '한중일 청소년 우호만남 한국대표'로 참가(일본 방문)
- 수상경력
- '14 중앙일보 칼럼상 수상(중앙일보 논설주간 상)
- '13 제 1회 전국 대학생 독서 토론대회 우승 (경기도 군포시장 상)
- '12 한동대학교 총장배 토론대회 베스트 스피커상 수상(한동대학교 총장 상)

신지윤_2015년 인재

2016년 2월 졸업 / 07학번 / 국제어문학부

수상소감

요즘 그렇게도 취업도 안 되고 살아가기도 어려운 평범한 지방 사립대 인문학 전공학생에게도 이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히 살겠습니다.

성장관 및 가치관

13년의 약속

제가 중학생이던 2002년부터 한 NGO를 13년간 꾸준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보하라'는 부모님의 가르침 따라 욕심부리지 않고 성실히 사회의 일원으로써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보다는 공동체와 공익을 우선 하는 삶이 결국 나에게도 도움 된다는 것을 실천하며 또 주위 사람들과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Handong Global University

장래 진로와 포부: 10년 후의 Dream(꿈)과 Hope(희망)

실질적인 현장 경험과 탄탄한 실력을 갖춘 아프리카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아프리카를 한국에 소개하고, 또 그곳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에게 말로만이 아닌 현장 경험과 연구에서 우리나라오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활동경력

- 전국 고교생 지리올림피아드 대회 동상(대한 지리 협회, '06)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중동지역 연구팀 활동('07~'08)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호 봉사활동, 아프리카 토고 쿠파만쿠('09)
- 주한 미 8군 2사단 1여단장 표창('11.08)
- 외교통상부 주최 <대학생을 위한 외교통상부 워크숍> 최우수상 수상('12.02)
- '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우수 행사 진행 요원('12.03)
- 아프리카 르완다 사회적 기업 베이커리 카페 "라즈만나" 공동 창업 및 경영('12.12~'14.12)

이원동_2018년 인재

2012년 2월 졸업 / 07학번 / 법학부(UIL,국제지역학)

수상소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제 인생의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길동무가 되어주는 아내 이신애, 사랑하는 부모님, 장인어른/장모님과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상은 앞으로 대한민국 인재상에 걸맞은 사람이 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더 겸손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성장과정 및 가치관

신문배달을 하시는 부모님을 따라 방과 후에는 끌려가듯이 배달을 해야 했습니다. 행여나 같은 반 친구들이랑 마주칠까 항상 조마조마했구요. 비릿한 신문잉크 냄새는 아직까지도 문득 자다 떠오릅니다. 빨리 그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고,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에게는 운 좋게도 배움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함께 신문배달을 했던 저소득층 동네형들에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혹자는 개인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면 된다."구요. 하지만 저의 성장과정을 통해 제가 관찰했던 것은 개인의 노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적, 구조적 임계점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한국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같이 배달했던 그 형들의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장래 진로와 포부 : 10년 후의 Dream(꿈)과 Hope(희망)

태어나자마자 저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소득 분위 하위 20%의 가정에서 인생을 출발하게 된 사람으로서, 앞으로 불평등과 정의의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씨름해 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 문제로 환원하는 입장이나 구조적 모순을 만 악의 근원이라 여기는 양 극단을 넘어, 각자의 인간적 번영과 공동체의 좋은 삶을 함께 조화시키는 방안들에 대해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늘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만약 고아로 자라나신 어머니가 한국이 아닌 다른 선진복지국가에서 자라났다면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됐을까?" "만약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들처럼 제도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동등한 "인정"이 주어진다면 아버지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향후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제 인생은 아마 이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평생을 가난하게 비정규직으로 살아오신 부모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최소한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에 대해 무시당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비주류가 갑의 눈치를 보지 않고 헌법적 주체로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누리게 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주요 공적 및 활동

- '18 "폴브라이트 장학생 선발"
- '17 "지역기반형 도시재생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국토연구 93호) 등재
- '17 "협력적 거버넌스에서의 대안적 대항력 형성 동학"(한국정치학회보 제51집) 등재
- '16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역 토지자산 공유방안 연구"(국토연구원) 참여
- '17 "사이버전과 전쟁법(Cyber Warfare and the Laws of War)"(연경문화사) 번역
- '14~'15 "해군사관학교 교수부 영어학과 교수사관 재직"

